커뮤니티 임팩트 사회공헌을 실행으로 2026년 11월 3주

후원·봉사·서류의 단위가 단체가 버티는 시간보다 짧은 쪽으로 읽힌다

인도 조사에서 기업 후원이 끊기는 흔한 이유로 책임자 교체가 꼽혔고, 다른 조사에서 모금가 열에 넷 가까이가 이직을 생각했다. 이탈리아 비엘라에서는 단체 지도부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영국에서는 문 닫거나 합친 단체가 10년 새 최다였고, 위협과 위험을 느낀 단체는 덜 드러내는 쪽으로 기울었다.

1 1~2년짜리 후원은 사람이 한 번 바뀌면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힌다 2쪽

2 일상에 붙인 기부는 모자랄 때 누가 메우는지가 갈림길로 읽힌다 3쪽

3 단체는 기업의 전문성을 바라는데, 오는 것은 짧은 일손으로 읽힌다 5쪽

4 단체의 끝이 늘면서 끝을 어떻게 돕느냐가 출연자의 일로 읽힌다 5쪽

5 영국 조사에서 위협·위험을 느낀 단체들이 덜 드러내는 쪽으로 기운다 6쪽

6 AI가 글솜씨를 메우면서 서류 심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읽힌다 6쪽

이번 주의 숫자

16.2%
모금 일을 아예 떠날 생각인 모금가, 2022년엔 9%

10센트
에어비앤비가 예약 한 건마다 떼는 기부

21.7%
이탈리아 봉사자 중 단체 활동·직접 돕기 겸업 몫으로 읽히는 숫자

약 12,500곳
영국에서 지난해 문 닫거나 합치거나 일을 넘긴 단체

65%
영국 조사에서 위협·위험 탓에 서비스 방식을 바꿨다는 응답

58%
기업은 돈만이 아니라 전문성·프로보노로 기여한다는 영국 리더

1 1~2년짜리 후원은 사람이 한 번 바뀌면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힌다

16.2%
모금 일을 아예 떠날 생각인 모금가 비율

인도 기브그랜츠의 보고서에서 기업 사회공헌 후원 관계의 절반 넘게가 4년 이상 이어졌다고 답한 단체는 가장 작은 규모에서 24%, 가장 큰 규모에서 36%였다. 관계가 끊기는 흔한 이유로는 기업 사회공헌 책임자의 교체와 회사 전략의 변화가 꼽혔다. 응답 단체의 91%는 기업에 바라는 세 가지 안에 더 긴 후원 기간을 넣었다. 기사는 사업 지원은 1~2년에 그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는 인재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 역량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단체 쪽 사람도 떠날 채비다. 지속가능필란트로피연구소가 모금가 272명을 조사하니 39.7%가 2년 안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었고, 모금 일을 아예 떠날 생각인 사람은 2022년 9%에서 16.2%로 늘었다. 자기 조직에서 경력 경로가 보인다는 사람은 떠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낮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연구로는 모금 담당자와의 관계가 끝나면 기부자 약 4분의 1이 덜 내거나 늦게 내거나 끊는다. 저자들은 떠난 사람이 맡던 고액 기부자의 신뢰를 되찾는 데 12~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답의 절반 넘게가 호주였고, 생각이 곧 퇴사는 아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문제는 사람보다 계약의 길이로 읽힌다. 기업 쪽 책임자든 단체 쪽 모금가든 한 번 바뀌면 신뢰를 다시 쌓는 데 1년 넘게 걸릴 수 있는데, 1~2년짜리 후원은 그 한 번을 견딜 여유가 없어 보인다. 12~18개월은 고액 기부 관계를 잰 숫자라 기업 후원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놓치기 쉬운 것은 인계 조항이 있어도 남은 계약 기간이 짧으면 이 틈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본다.

1년짜리 협약을 해마다 다시 맺으면 양쪽 담당자가 한 번만 바뀌어도 남은 기간이 신뢰를 다시 쌓는 데 다 쓰일 수 있다. 기간을 늘려 두면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이 이어질 시간이 생긴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달 내년 협력 단체 협약안을 1년이 아닌 다년 단위로 올리고, 양쪽 담당자가 바뀔 때 상대에게 알리고 인계하는 조항을 넣는다.**

2 일상에 붙인 기부는 모자랄 때 누가 메우는지가 갈림길로 읽힌다

10센트
에어비앤비가 예약 한 건마다 떼는 기부

에어비앤비는 11월 초 앞으로 5년 동안 자선 조직 에어비앤비닷오르그에 5억 달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예약 한 건마다 10센트를 떼고 모자라면 회사가 채운다. 예약분만으로 채우려면 50억 건이 필요하지만, 브라이언 체스키 대표는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약속을 끝내겠다고 했다. 재난 이재민과 치료차 이동하는 가족에게 무료 숙소를 주는 조직이다.

한국에서도 나눔이 일상에 붙는다. 삼성은 사업장 근처 음식점·카페 370곳을 나눔가게로 정해 임직원이 이용하면 가게가 매출 일부를 기부하게 했다. 2015년 시작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대면 1,000원씩 기부되고, 삼성전기 임직원이 여기서 모은 500만 원은 12일 전달돼 세종의 아동 치과 치료비 등에 쓰이게 됐다. 매칭도 넓어져,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0.2~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는 약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돈이 모자랄 때 누가 메우느냐로 읽힌다. 에어비앤비는 부족분을 회사가 채운다. 기사에 적힌 대로라면 나눔가게는 가게 매출에서, 키오스크는 임직원 지갑에서 돈이 나오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것은 성과급 매칭이다. 가게 매출이나 직원 참여가 줄면 단체에 가는 돈도 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도 있다. 스페인과 뉴욕이 단기 임대를 죄는 가운데 한 연구자는 이 기부가 논란 많은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짚었다.

가게와 직원이 내는 기부는 그 수가 줄면 함께 줄 수 있어, 협력 단체가 내년 금액을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본다. 회사가 메울 몫을 정해 두면 같은 돈이 단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돈이 된다. **결제·사원증 연동 기부를 맡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달 내년 협약안에 가게·임직원·회사가 각각 내는 몫과 모자랄 때 회사가 채울 금액을 한 표로 적는다.**

1번 변화에 붙여

다년 협약은 사람이 바뀐 다음 해를 미리 짜 두면 버티기 쉽다

다년 협약을 맺어도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면 사실상 1년짜리로 돌아가기 쉽다고 본다. 예산은 해마다 확정하되 사업 기간과 목표는 여러 해로 묶고, 다음 해 심사는 처음 정한 목표에 비춰 진행만 보는 방식을 내부 결재 문서에 적어 둘 만하다. 순서는 관계가 한 사람에게 걸린 단체부터다. 지난 몇 해 동안 양쪽 담당자가 바뀐 이력을 단체마다 한 줄씩 적으면 어디가 먼저인지 보인다.

단체 쪽 사람을 지키는 일에도 후원이 닿을 수 있다. 자기 조직에서 경력 경로가 보인다는 모금가는 떠날 생각을 덜 했다. 그렇다면 후원금 일부를 협력 단체 담당자의 교육과 역할 설계에 쓰도록 열어 두는 것도 해 볼 만하다. 다만 조사가 본 것은 그 조직 안의 경력 경로라, 바깥 후원이 같은 효과를 낼지는 따져 봐야 한다. 기업 영업에서 큰 거래처를 두 사람이 함께 맡듯, 연락 창구를 실무자와 그 상사 두 사람으로 두면 한 사람이 떠나도 관계가 덜 끊긴다. 해마다의 점검 날짜를 단체에도 미리 알려 두면 단체가 보고를 준비하는 부담도 준다.

2번 변화에 붙여

건당 기부는 참여를 부르는 말로, 약정은 총액과 기간으로

에어비앤비 발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예약마다 회사가 떼는 10센트보다 5년 동안 5억 달러라는 약정의 꼴로 본다. 단체가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은 건당 금액보다 총액과 기간이다. 나눔가게나 사원증 기부를 맡은 담당자라면 내년 협약에서 둘을 나눠 적는 편이 낫다. 임직원에게는 한 번에 1,000원 같은 쉬운 문턱을 알리고, 단체와는 한 해 총액과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선을 따로 약속하는 식이다.

참여 가게 수나 참여 인원만 성과로 보고하기 쉽다고 본다. 단체가 받는 돈은 매출과 참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데, 보고서에는 늘어난 가게 수만 남기 쉽다. 그래서 단체에 실제로 간 금액을 달마다 적는 칸을 두는 것이 첫 걸음으로 보인다. 단체 쪽에서는 전체 수입에서 한 기업의 연동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줄 적어 두면, 그 회사의 참여가 줄거나 사업이 논란에 휩싸일 때 얼마나 흔들릴지 미리 보인다고 본다.

3 단체는 기업의 전문성을 바라는데, 오는 것은 짧은 일손으로 읽힌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에서 자원봉사자 비율은 2013년 12.7%에서 2023년 9.1%로 약 3할 줄었고, 봉사자 가운데 단체 활동과 직접 돕기를 함께 하는 몫으로 읽히는 숫자는 8.1%에서 21.7%로 늘었다. 10일 발표된 비엘라 지역 연구는 단체 지도부가 대부분 60세 이상이라 대를 잇기 어렵고, 기업 봉사와 온라인 봉사처럼 짧고 유연한 봉사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영국 베네팩트 그룹 조사에서 리더 427명의 58%는 기업이 돈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프로보노로 가장 큰 가치를 낸다고 했다. 리얼라이즈드 워스의 글은 임직원 봉사가 마감과 인력에 묶인 중간 관리자 자리에서 좁아지고, 늘 대놓고 거절하기보다 때로 빠진 일을 나중에 메우라는 말 없는 기대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단체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과 긴 책임인데 기업 봉사는 짧은 일손으로 오고, 그 시간도 팀장 선에서 막히기 쉽다고 본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이번 달 협력 단체 한 곳의 빈 운영 역할을 받아, 반년 맡을 임직원과 그 팀장의 승인을 함께 묻는 모집안을 만든다.**

---

4 단체의 끝이 늘면서 끝을 어떻게 돕느냐가 출연자의 일로 읽힌다

영국 싱크탱크 PBE 분석에서 문을 닫거나 합치거나 일을 넘긴 시민사회 단체는 2015년 8,000곳에서 지난해 약 1만 2,500곳으로 약 56% 늘었다. 새로 생기는 단체도 함께 늘어 PBE는 건강한 교체인지 불안정인지 아직 가리지 않았다. 끝을 앞둔 리더의 상담 전화를 받으며 함께 분석한 디셀러레이터는 시간과 지원이 있으면 끝도 전략적이고 공동체에 값질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주 웨일스 정부는 기후 단체 사이즈 오브 웨일스의 우간다 나무 심기 보조금 35만 파운드를 내년 3월 뒤로 잇지 않기로 했다. 이 단체 최근 결산 수입 120만 파운드의 약 3할이 11월 보도 기준 넉 달 남짓 뒤 빠지는 셈이다. 문을 닫은 사례는 아니지만, 끝을 돕는 일은 통보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지원을 끊을 때 시간과 인계 비용을 함께 주면 단체가 끝나도 이용자를 다른 곳에 이어 줄 수 있다고 본다. **재단 배분 담당자는 이번 달 내년 지원을 줄이거나 끊을 단체 목록을 뽑아, 단체마다 통보 시점과 인계 지원 금액을 한 줄씩 정한다.**

5 영국 조사에서 위협·위험을 느낀 단체들이 덜 드러내는 쪽으로 기운다

영국 단체 애사일럼 매터스와 프락시스가 자선단체 209곳과 직원·봉사자 125명을 조사하니 47%가 실제 위협이나 괴롭힘을 겪었고, 65%는 지난 3년 동안 서비스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답했다.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공개 행사를 비공개로 돌리고, 홍보와 언론 노출을 줄였다. 조사에 응한 단체와 개인 모두가 총리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편지에 서명했다. 지난 호에 전한 독일 조사에서도 여섯 곳 중 한 곳이 혐오나 적대를 겪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뒤 한 로비스트가 대통령이 적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 조사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미국 자료는 위협과 압박을 보여 줄 뿐, 단체가 활동을 줄였는지는 적지 않았다.

이 지면은 드러내야 성과가 되는 회사 홍보와 덜 드러내려는 단체가 어긋난다고 본다. 사진과 실명이 이용자를 드러낼 수 있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달 연말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협력 단체와 사진·이름·장소의 공개 범위를 서면으로 정한다.**

---

6 AI가 글솜씨를 메우면서 서류 심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읽힌다

밴쿠버재단의 심사를 들여다본 디자인 팀은 원주민 단체가 적게 뽑히는 까닭으로 일의 질과 무관한 언어와 작성 인력을 찾아내고 심사자용 카드를 만들었다. 카드 한 장은 잘 쓴 신청서가 곧 일 잘하는 단체라는 가정을 묻는다. 그 걸림돌을 AI가 메워 줄 수 있다. 앤트로픽이 10월 26일 내놓은 비영리용 클로드 기능은 공모 요강을 요건 목록과 단체 자료로 만든 첫 초안으로 바꿔 주고, 국내에도 오렌지임팩트 같은 서비스가 나왔다. 다만 아름다운재단 연구소 글은 AI를 쓸 역량이 없는 작은 단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 서클재단은 직원을 두 명까지만 두고 AI가 후보 조사와 점수 초안을 맡게 했으며, 서면 보고 대신 분기마다 대면 통화를 하기로 했다. 결정은 사람이 한다.

AI가 글솜씨를 메우면 서류는 변별력을 잃는 대신 작은 단체에 덜 불리해질 수 있다. 서류를 버리기보다 서류가 재던 것을 바꿀 때로 본다. **재단 배분 담당자는 이번 달 내년 공모 요강 초안에서 문장 완성도 배점을 빼고, AI 사용 허용과 면담·현장 확인 단계를 넣는다.**

이슈 1

일본 고향납세의 순수한 기부 동기는 열에 하나도 안 된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인터뷰에서 일본펀드레이징협회 이사가 인용한 기부백서 2025 조사에 따르면 고향납세는 개인기부의 60% 이상이 됐지만 이용자 90% 이상은 절세와 답례품이 주목적이다. 이사는 사가현처럼 고향납세를 NPO 기부로 잇는 지자체와 NPO의 협력을 권했다.

고향사랑기부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나 지역 단체라면, 답례품을 더 늘리기보다 순수한 기부 동기를 넓히는 쪽에서 내년 사업을 짜 볼 만하다. 지자체는 모금 창구를 열고 지역 단체는 실행을 맡는 짝으로, 기부자가 쓰임을 보고 고를 수 있는 사업을 함께 내놓는 식이다. 사가현 사례는 그 짝이 지역 단체를 키우는 쪽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읽힌다. 연말 모금 안내에서도 답례품 사진보다 지난해 기부금이 무엇에 쓰였는지를 앞에 두는 편이 기부 동기로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는 쪽으로 본다. 이번 달 첫 걸음은 지역 단체 한두 곳과 내년 기부 사업 후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담당 부서에 건네는 것이다. 단체를 부를 때 기부자가 받아 볼 결과 한 줄을 먼저 함께 정해 두면 안내문이 쉬워진다.

이슈 2

곧장기부는 운영비를 재단이 지고 기부금을 다 전한다

> 라이프인 보도에 따르면 SK행복나눔재단의 곧장기부는 운영비·결제 수수료·배송비를 재단이 부담해 기부금을 100% 전하고, 구매부터 후기까지 실시간 알림으로 쓰임을 알린다. 누적 기부금은 61억여 원이고, 정기기부 신청자의 57%가 과제를 직접 고르는 임팩트기부를 택했다.

자체 기부 플랫폼이나 임직원 모금함을 운영하는 기업 재단이라면, 수수료와 운영비를 누가 지는지를 기부자에게 먼저 보여 주는 설계를 빌려 볼 만하다. 곧장기부는 제반 비용을 재단이 떠안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고, 그 위에 지원할 과제를 기부자가 고르는 방식을 얹었다. 임직원 모금이라면 사무국 비용을 회사 예산으로 따로 잡고, 직원에게는 고를 수 있는 과제 두세 개를 보여 주는 식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본다. 쓰임을 연말 보고서 한 번이 아니라 진행 중에 알리는 것도 빌릴 대목이다. 이번 달에는 진행 중인 임직원 모금의 비용 항목을 한 줄씩 적고, 회사가 질 몫과 기부금에서 나가는 몫을 갈라 두는 것부터 해 볼 만하다. 비용 표는 직원 공지에 그대로 붙일 수 있게 쉬운 말로 쓰는 편이 낫다.

이슈 3

28년 식품을 기부한 회사가 푸드뱅크 배송차를 늘려 간다

> 복지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상미당홀딩스의 푸드뱅크 누적 기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439억 원으로 전국푸드뱅크 기부액의 약 10%다. 2022년 협약 뒤 배송차량 12대를 냈고 2030년까지 20대로 늘린다. 일부 지역은 차량이 낡아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물 기부를 해 온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물건 다음 칸으로 그 물건이 가는 길을 볼 만하다. 기부한 식품이 늦게 닿거나 신선도를 잃으면 기부액이 커도 이웃에게 닿는 몫은 줄 수 있다고 본다. 차량처럼 한 번에 큰돈이 드는 설비는 목표 연도까지 해마다 몇 대씩 나눠 약속하면, 받는 쪽이 교체 순서를 미리 세우기 쉽다. 받는 기관에 무엇이 모자란지 묻지 않고 늘 같은 품목을 보내기 쉽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하다. 이번 달 첫 걸음은 협력 기관에 보관과 운송에서 가장 막히는 곳을 한 줄로 묻는 것이다. 답이 냉장고든 차량이든 내년 현물 기부 계획에 그 설비를 함께 올려 볼 만하다. 설비를 약속할 때는 유지비와 보험을 누가 낼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다고 본다.

이슈 4

DRW는 매칭이 초기화되기 전 3주 동안 참여율을 겨뤘다

> ACCP 블로그에 따르면 기업 94%가 기부 매칭을 두지만 직원 참여는 약 20%다. DRW는 새해에 매칭이 초기화되기 전 3주 동안 섞은 팀끼리 참여율을 겨루게 하고 기간 중 보너스 매칭과 1,000달러씩의 여행 크레디트·기부금 추첨을 걸어, 2025년 참여율 46%에 154만 5,000달러를 모았다.

매칭 제도는 있는데 신청이 적은 회사라면, 연말 몇 주에 참여율 겨루기와 보너스 매칭을 함께 거는 방식을 빌려 볼 만하다. 46%는 기존 매칭 위에 보너스 매칭과 추첨까지 얹은 조건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겨루는 것이 금액이 아니라 참여율이라 적게 내는 직원도 팀에 보탬이 되니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읽힌다. 사무소별이 아니라 섞은 팀으로 겨루면 큰 사무소와 원격 근무자도 자기 팀 순위에 묶인다고 본다. 국내 매칭은 한도가 해마다 초기화되지 않는 곳도 있어 마감 기한은 따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달 할 일은 지난해 매칭 신청자를 부서와 근무지별로 나눠 비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12월 3주짜리 겨루기의 팀 편성안과 보너스 매칭 예산을 함께 올리는 것이다.

이슈 5

미국은 올해 기부분부터 항목공제 없이도 기부 공제를 받는다

> The NonProfit Times 기고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 기부분부터 표준공제 납세자도 현금 기부를 1인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2,000달러까지 공제받는다. 기부자조언기금에 낸 돈은 빠진다. 납세자 약 90%가 표준공제를 택한다.

미국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이번 달 현지 임직원에게 보낼 연말 기부·매칭 안내에 이 공제를 한 줄 넣어 볼 만하다. 다만 기부자조언기금에 낸 돈은 빠지니, 회사가 쓰는 기부 플랫폼이 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안내가 틀리지 않는다. 개인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넘긴다고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 단체가 빌릴 것은 메시지를 하나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본다. 소액 기부자와 고액 기부자는 세제에서 받는 영향이 다르니, 연말 안내를 기부자층에 따라 나눠 쓰는 것이다. 이번 달에는 세무 담당에게 내년 기부금 공제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묻고, 기부자층별로 안내문 첫 문단을 따로 적어 볼 만하다.

이슈 6

TCS 리더들이 교육기관 50곳에서 강의와 해커톤을 맡았다

> India CSR 보도에 따르면 TCS는 27개 도시 50개 교육기관에서 TCS 테크 데이를 열어 학생 2만 3,000여 명과 교수 912명을 만났다. 리더와 전문가 620여 명이 마스터클래스 92회와 해커톤 48회를 맡았다. 회사는 이를 산학 협력 강화 사업으로 소개했다.

TCS는 이 행사를 사회공헌이 아니라 산학 협력 사업으로 소개했다. 그래도 직원이 평소 다루는 문제를 해커톤 과제로 들고 가는 형식은 임직원 재능기부 담당자가 빌려 볼 만하다. 사회공헌으로 옮길 때의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본다. 채용 후보가 많은 학교보다 기업 멘토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대학이나 특성화고를 고르는 편이 사회공헌의 뜻에 맞는다. 과제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같은 학교와 같은 부서가 학기마다 과제를 이어 내는 짝으로 묶어야 결과물이 쌓인다고 본다. 이슈 9의 프로보노처럼 봉사 시간보다 결과물을 남기는 쪽이다. 이번 달 첫 걸음은 내년 상반기 협력 학교 한 곳과 과제를 낼 부서 두세 곳을 정하는 것이다.

이슈 7

일본생협연의 아동 빈곤 공모는 해마다 총액이 달랐다

> 신일본보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생협연은 12월 3일까지 아동 빈곤 활동 조성 단체를 모집해, 내년 4월부터 카탈로그 매출 일부와 코프공제연 협찬으로 최대 700만 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300만 엔 협찬이 더해진 해의 총액은 614만 ~709만 엔, 아닌 해는 402만~422만 엔이었다.

재원을 여러 곳에서 모아 공모를 여는 기업과 재단의 배분 담당자라면, 총액의 폭을 무엇이 만들었는지 볼 만하다. 협찬이 붙은 해와 빠진 해의 차이가 300만 엔 안팎이라, 매출에서 오는 몫은 해마다 비슷했고 폭을 만든 것은 들고 나는 협찬이었던 것으로 읽힌다. 협찬이 총액에 그대로 들어갔는지는 기사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모를 흔드는 것은 판매보다 해마다 새로 맺는 협찬 쪽이라고 본다. 협찬처와 여러 해짜리 약정을 맺거나, 협찬이 빠지는 해에 쓸 다른 재원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일정도 참고할 만하다. 12월 초에 마감하고 지원은 이듬해 4월에 시작해 넉 달 가까운 틈을 둔다. 이번 달 할 일은 내년 공모의 재원을 출처별로 나눠 적고, 해마다 새로 맺어야 하는 협찬이 어느 것인지 표시하는 것이다.

이슈 8

라쿠텐손보는 사고 대응 직원 한 명당 반사경 하나를 기부했다

> 신일본보험신문 보도에 따르면 라쿠텐손보는 마쓰야마시에 처음으로 기업판 고향납세를 써서 도로반사경 40개를 기부했다. 현지 거점에서 자동차보험 사고 대응을 맡는 직원 40명 한 명당 한 개꼴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 사업에 기부한 기업의 법인 관련 세금을 줄여 준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고민하는 담당자라면, 회사의 일과 기부 물품을 잇는 설계를 빌려 볼 만하다. 사고를 처리하는 직원 수만큼 사고를 줄이는 시설을 낸 셈이라, 왜 이 기부인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 이 기부를 받친 것은 기업판 고향납세라는 세제 장치다. 이슈 1의 고향납세가 개인판이라면 이것은 기업판인데, 국내에 같은 장치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니 빌릴 것은 세제보다 설계다. 국내라면 배송 인력이 많은 회사는 어린이 통학로 시설을, 상담 부서가 큰 회사는 상담 창구 접근성을 보는 식으로 부서가 하는 일에서 지역의 빈 곳을 찾을 수 있다. 시설물이라면 설치 위치와 유지 관리를 지자체 담당 부서와 먼저 맞춰야 한다. 이번 달 첫 걸음은 사업장 직원에게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 위험하다고 느낀 곳을 묻는 것이다.

이슈 9

스페인 프로보노 대회는 로펌과 법대생이 제도안을 다듬는다

> Corresponsables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프로보노재단 대회에 14개 대학 법률클리닉이 17건을 냈고, 로펌 변호사들이 1년 동안 학생 팀을 도왔다. 우승안은 자폐인 근로계약에 교육·승진 조항과 법인세 공제를 붙이는 안이다. 자폐인 단체 연맹이 현장의 필요를 대고 결과를 정책 논의로 가져간다.

전문직이 많은 기업이나 협회의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보다 결과물이 남는 과제형 프로보노를 빌려 볼 만하다. 이 대회는 학생 팀과 로펌이 짝을 이뤄 한 사회 문제의 제도안을 한 해 동안 다듬었고, 당사자 단체가 문제를 대고 결과를 들고 나갔다. 국내라면 회계·법무·인사 부서가 협력 단체의 제도 문제 하나를 받아, 대학 동아리나 인턴과 함께 몇 달 동안 풀게 할 수 있다. 결과물은 보고서보다 단체가 바로 쓸 수 있는 규정안이나 계약서 양식이어야 쓸모가 남는다고 본다. 과제를 너무 넓게 잡으면 몇 달 안에 쓸 만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달 할 일은 협력 단체마다 내년에 가장 필요한 제도·서류 문제를 하나씩 받아 두는 것이다. 이때 결과물을 받아 쓸 담당자를 단체 쪽에서 한 명 정해 달라고 함께 부탁하는 편이 좋다.

이슈 10

이탈리아 대법원은 봉사로 처리한 기간을 근로로 다시 봤다

> Cantiere Terzo Settore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봉사로 처리한 기간을 근로로 본 사회보장청 판단을 확정했다. 쓴 돈과 무관한 정액 실비, 뒤의 계약직 일과 같은 업무, 조직 편입과 지휘를 함께 따졌다. 법은 실제 쓴 비용 상환이 원칙이다.

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일정액으로 주는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 매니저라면, 이 판결에서 점검할 질문을 빌려 볼 만하다. 사안은 협동조합이 계약과 봉사를 섞어 쓴 경우라 국내 단체와 그대로 같지는 않고, 국내 법령의 기준도 다르다. 그래도 판결이 함께 본 세 가지는 점검표가 된다고 본다. 활동비가 실제 교통비와 식비에 묶여 있는지, 봉사자가 나중에 같은 일로 채용된 경우가 있는지, 봉사자가 근무표와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지다. 셋이 겹치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달에는 올해 봉사자 실비 지급 내역에서 정액으로 나간 항목을 표시하고, 유급 전환 전에 봉사 기간이 있었던 사람을 따로 뽑아 두는 것이 첫 걸음이다. 지급 방식을 바꾼다면 봉사자에게 미리 알려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이슈 11

코비비오의 2주 봉사 주간은 1년 내내 도는 봉사의 입구다

> CSRoggi 보도에 따르면 코비비오의 봉사 주간은 밀라노와 로마에서 2주 동안 열려 이탈리아 직원의 80%가 참여했고, 90명이 360시간 넘게 봉사했다. 함께한 단체 여섯 곳 가운데 일부는 재단이 1년 내내 돕는다. 주간 밖에서도 시간 제한 없는 상시 봉사가 이어진다.

봉사 참여가 해마다 일부 부서에 몰리는 회사라면, 짧은 봉사 주간을 긴 관계의 입구로 쓰는 구조를 빌려 볼 만하다. 코비비오의 주간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재단 후원과 상시 봉사가 그 앞뒤를 받친다. 주간에 처음 단체를 만난 직원이 상시 봉사로 넘어갈 길이 열려 있어야 짧은 일손이 긴 관계로 바뀐다고 본다. 재단이 이미 돕는 단체를 끼워 넣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돈으로만 맺던 관계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자리가 더해지면, 다음 해 협약을 이야기할 때 양쪽에 아는 얼굴이 생긴다. 이번 달 할 일은 지금 후원하는 단체에 내년 봉사 주간에 함께할 반나절 활동과, 그 뒤 직원이 이어서 맡을 수 있는 상시 역할이 있는지 함께 묻는 것이다.

이슈 12

아프리카 지역재단들이 대륙 연합을 꾸렸다

> Alliance Magazine 보도에 따르면 10월 8일 케냐 몸바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재단 연합이 출범했다. 7개국 지역재단 102곳은 대부분 젊고 홀로 일한다. 남아공에서 1990년대 말 외부 기부자 돈으로 세운 재단은 대부분 무너졌고, 현장은 짧은 지원 기간이 기관을 약하게 한다고 말해 왔다.

지역에 재단이나 기금을 새로 만들려는 기업과 공공기관이라면, 남아공의 경험을 먼저 볼 만하다. 밖에서 돈을 넣어 세운 재단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출연해 지역 기금을 만든다면 첫해부터 주민과 지역 단체가 배분 결정에 앉는 자리를 정관에 두고, 지역 안의 작은 기부를 함께 받는 창구를 여는 편이 낫다고 본다. 지원 기간도 따져 볼 대목이다. 짧은 지원이 기관을 약하게 한다는 현장의 말은, 출연 약정을 해마다 새로 맺기보다 여러 해로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읽힌다. 국내 지역 기금 담당자라면 이웃 지역 기금과 배분 기준이나 심사 경험을 나누는 정기 모임을 이번 달 한 번 제안해 볼 만하다. 첫 모임에는 각자의 배분 기준표 한 장씩만 들고 와도 이야기가 시작된다.

위 내용에는 편집진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움직인 것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전기매트 200개를 사자 라헨느코리아가 200개를 더해 400개를 성동·중랑 취약계층에 보낸다.

관내 편의점 6곳을 위기가구 발견·제보 거점으로 삼은 김포시 사례가 12일 복지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7일 AI가 측정 초안을 내면 담당자가 근거를 보고 확정하는 사회공헌 평가 도구를 소개했다.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12일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27명에게 피해자의 선택과 존엄을 존중하는 권리교육을 했다.

전망

12월 31일까지 삼성 관계사가 아닌 국내 기업의 노사가 성과급 기부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20%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0.2~1% 기부에 1대1 매칭을 붙이는 약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12일 나왔다. 다른 기업 사례는 찾지 못했고 남은 기간이 7주라 다섯에 하나로 본다. 견줄 과거 사례가 없어 거친 숫자다. 11월 16일~12월 31일 게재 국내 매체 기사(인터넷 신문 포함)에서 삼성 관계사 밖 기업의 노사가 성과급 기부 매칭에 합의했다고 적은 기사가 1건 이상이면 맞음(포털 뉴스 검색 기준). 추진·검토 보도와 노사 합의 없는 회사 단독 발표는 세지 않는다.

12월 31일까지 영국 정부가 자선단체 직원·봉사자를 위협에서 보호하는 전략이나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15%

응답자 334명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전략을 요구했지만 정부 답은 기사에 없다. 총리는 구명정 봉사자 공격을 비판한 적이 있다. 7주 안에 별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11월 16일~12월 31일 영국 정부가 이름을 붙여 낸 전략 문서나 재원·담당 기관이 정해진 보호 조치만 센다. 담화 속 언급, 기존 협약 문구 추가, 권한 검토 착수는 세지 않는다.

지난 전망 점검

10월 5주 호 전망: 12월 31일까지 제론테크·에이지테크 등을 제목에 쓴 국내 기사 2곳 이상 11건 이상(10월 25일 이후 게재). 8건 7곳이나 한 매체의 2건은 재테크·체육시설 기사다.

11월 1주 호 전망: 12월 31일까지 제3섹터·비영리단체 등을 제목에 쓴 국내 기사 2곳 이상 6건 이상(10월 31일 이후). 2건 2곳이고 1건은 미국 소송 기사다.

지난 호는 잇는 조직이 흔들린다고 썼다. 이번 주 영국에서는 문 닫거나 합친 단체가 10년 새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주 짧게

이탈리아 카리플로 재단은 2027년 배분을 2억 2,610만 유로로 잡아 앞선 해들보다 늘렸다.

영국 스킵턴 빌딩 소사이어티 재단은 선착순 75건 신청 창구를 비판 뒤 1월 1일 공휴일에서 4일로 옮겼다.

미국 지역 뉴스 지원 연합 프레스 포워드의 144개 지부 가운데 약 80%를 지역 재단이 이끈다.

편집장의 글

이번 주 여섯 가지는 후원과 봉사와 심사의 단위가 단체가 견디는 시간과 안전보다 짧은 자리로 읽힌다. 1~2년짜리 후원은 사람이 한 번 바뀌는 일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고, 단체가 바라는 전문성 대신 짧은 일손이 오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끊는 통보 시점은 단체의 끝을 좌우하는 것으로 읽히고, 드러내야 성과가 되는 홍보는 덜 드러내려는 단체와 어긋난다고 본다. 일상 기부는 부족분을 누가 메우느냐로 갈리고, AI가 지원서 글솜씨를 메우면 서류 심사가 재던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대부분 한 주의 조사와 사례라 굳어진 흐름이라 하기는 이르다. 다음 주에는 삼성 밖에서 성과급 기부 매칭이 나오는지, 영국 정부가 위협받는 단체에 답하는지를 본다.

1 1~2년짜리 후원은 사람이 한 번 바뀌면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힌다

인도 수치는 기브그랜츠 보고서, 모금가 수치는 연구소 조사, 12~18개월은 그 보고서 저자들의 고액 기부 관련 언급. 계약 길이가 문제라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다년 후원도 교체 뒤 끊기는 비율이 같으면 틀린다.

India CSR (인도, 11월) · UK Fundraising (영국, 11월)

2 일상에 붙인 기부는 모자랄 때 누가 메우는지가 갈림길로 읽힌다

에어비앤비는 AP 기사를 실은 크로니클, 삼성은 국내 보도. 누가 부족분을 지느냐로 가른 것은 이 지면의 읽기. 삼성이 나눔가게·키오스크에도 회사 보전분을 두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면 틀린다.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11월) · 더나은미래 (한국, 11월) · 복지타임즈 (한국, 11월)

3 단체는 기업의 전문성을 바라는데, 오는 것은 짧은 일손으로 읽힌다

이탈리아 수치는 통계청 자료를 옮긴 연구 기관 글, 58%는 베네팩트 보고서, 막힘은 리얼라이즈드 워스 글. 셋을 이은 것은 이 지면의 읽기. 기업 봉사로 운영 역할을 맡는 사례가 흔하다는 자료가 나오면 틀린다.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11월) · UK Fundraising (영국, 11월) · Realized Worth (미국, 11월)

4 단체의 끝이 늘면서 끝을 어떻게 돕느냐가 출연자의 일로 읽힌다

영국 수치와 웨일스 보조금은 서드섹터. 웨일스 건은 단체 종료가 아닌 한 사업 보조금 중단. 통보 시점이 끝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종료 원인이 지원 중단과 무관하다고 나오면 틀린다.

Third Sector (영국, 11월) · Third Sector (영국, 11월)

5 영국 조사에서 위협·위험을 느낀 단체들이 덜 드러내는 쪽으로 기운다

영국 수치는 두 단체 조사로 응답자 전원이 총리 서한에 서명한 표본. 독일은 지난 호 재단 조사. 홍보와 어긋난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국내에서 같은 위협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해진다.

Third Sector (영국, 11월) · Fundraiser-Magazin (독일, 11월)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11월)

6 AI가 글솜씨를 메우면서 서류 심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읽힌다

기능은 영국 업계지, 밴쿠버는 NPQ, 서클은 크로니클, 국내 서비스는 아름다운재단 연구소 글. 잣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 지면의 읽기. AI를 쓴 신청서가 심사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자료가 나오면 틀린다.

UK Fundraising (영국, 11월) · Nonprofit Quarterly (미국, 11월)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11월)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 10월)

이슈 1 일본 고향납세의 순수한 기부 동기는 열에 하나도 안 된다

일본펀드레이징협회 이사 인터뷰에 기댄 해석. 쓰임을 앞세운 국내 고향사랑기부 사업이 답례품 중심 사업보다 모금이 크게 적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 10월)

이슈 2 곧장기부는 운영비를 재단이 지고 기부금을 다 전한다

라이프인의 곧장기부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비용을 회사가 진다고 밝힌 임직원 모금에서도 참여가 늘지 않았다는 자료가 나오면 이 제안은 약하다.

라이프인 (한국, 11월)

이슈 3 28년 식품을 기부한 회사가 푸드뱅크 배송차를 늘려 간다

복지타임즈의 전달식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협력 기관에 물어도 설비보다 물품이 더 급하다는 답이 대부분이라면 이 제안의 쓸모는 작다.

복지타임즈 (한국, 11월)

이슈 4 DRW는 매칭이 초기화되기 전 3주 동안 참여율을 겨뤘다

ACCP 블로그에 실린 DRW 담당자 글에 기댄 아이디어. 국내 기업에서 참여율 경쟁이 한 해 반짝 오른 뒤 이듬해 그대로 떨어진다면 이 방식은 약하다.

ACCP (미국, 11월)

이슈 5 미국은 올해 기부분부터 항목공제 없이도 기부 공제를 받는다

The NonProfit Times의 모금 전문가 기고에 기댄 해석. 공제를 알린 연말 안내문이 그렇지 않은 안내문보다 기부를 늘리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The NonProfit Times (미국, 10월)

이슈 6 TCS 리더들이 교육기관 50곳에서 강의와 해커톤을 맡았다

India CSR의 TCS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과제형으로 바꾼 국내 재능기부에서 직원 참여가 강의형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제안은 약하다.

India CSR (인도, 11월)

이슈 7 일본생협연의 아동 빈곤 공모는 해마다 총액이 달랐다

신일본보험신문의 공모 안내 보도에 기댄 해석. 협찬이 표의 총액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폭을 협찬이 만들었다는 읽기는 틀린다.

신일본보험신문 (일본, 11월)

이슈 8 라쿠텐손보는 사고 대응 직원 한 명당 반사경 하나를 기부했다

신일본보험신문의 기부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업무와 이은 국내 기업 기부가 직원 참여나 지역 반응에서 일반 기부와 차이가 없다면 약하다.

신일본보험신문 (일본, 11월)

이슈 9 스페인 프로보노 대회는 로펌과 법대생이 제도안을 다듬는다

Corresponsables의 대회 결과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과제형 프로보노의 결과물이 단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국내 자료가 나오면 약하다.

Corresponsables (스페인, 11월)

이슈 10 이탈리아 대법원은 봉사로 처리한 기간을 근로로 다시 봤다

Cantiere Terzo Settore의 판결 해설에 기댄 해석. 국내 법령과 판례가 정액 활동비나 봉사 뒤 채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이 점검의 시급성은 작다.

Cantiere Terzo Settore (이탈리아, 10월)

이슈 11 코비비오의 2주 봉사 주간은 1년 내내 도는 봉사의 입구다

CSRoggi의 행사 보도에 기댄 아이디어. 봉사 주간을 둔 국내 기업에서 상시 봉사로 넘어가는 직원이 거의 없다면 입구로 쓴다는 읽기는 약하다.

CSRoggi (이탈리아, 9월)

이슈 12 아프리카 지역재단들이 대륙 연합을 꾸렸다

Alliance Magazine의 연합 출범 보도에 기댄 해석. 기업 출연만으로 세운 국내 지역 기금이 10년 넘게 잘 이어진 사례가 흔하다면 첫 제안은 약하다.

Alliance Magazine (영국, 10월)

작성자: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 & AI. 인용한 자료는 저작권 기준을 준수했습니다.